



[경제종합]
정의선 회장
친환경 미래사업
글로벌 진두지휘
04

창간 **20**년
since 2002

metro



Economy

매일 아침, 나를 키우는 메트로

코스피 2483.16 (+80.93)	코스닥 731.22 (+23.44)
금리 (국고채 3년) 3.834 (-0.199)	환율 (원·달러) 1318.40 (-59.10) <11일>

3高에 투자 가뭄... ‘옥석 가리기’ 시작

**엔데믹시대,
유통산업 어디로**

〈下〉버티컬 커머스

고물가 시대, 업계 희비 교차
고개확보만으로 인정 어려워
추가 투자 없이 생존 불투명

오늘식탁 권고사직·영업중단
협합퍼도 수익성 악화로 종료

한동안 ‘유니콘’을 쏟아내던
버티컬 커머스에 희비가 교차하
고 있다.

특정 카테고리만을 전문으로
다루는 버티컬 커머스는 차별화
된 서비스와 상품으로 고객을
확실하게 록인(Lock-In)하면
서 한동안 e커머스 기업들의 새
로운 생존책으로 떠올랐다. 그



오늘의집은 지난 5월 2300억원 규모
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
했다.

/오늘의집

리면서 지난해까지 수천억원의
투자금을 유치하는 ‘유니콘’들
이 쏟아졌지만 최근 상황은 극
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. 한쪽에
서는 적자를 감당 못해 사업을
축소하고 있는 반면, 다른 쪽에
서는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 점
유율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을
이어가고 있다.

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3고
(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) 사태
속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

버티컬 커머스 플랫폼 ‘옥석 가
리기’가 가속화하고 있다.

최근 버티컬 커머스 업계는
투자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. 3
고 사태로 자본 운용이 보수화
돼 단순히 확보한 활성고객의
수만으로는 투자 가치를 인정받
기 어려워졌다.

한 업계 관계자는 “거품이 건
히고 있다”며 “한동안 플랫폼 기
업, 특히 방대한 회원수를 확보
한 플랫폼 기업이라면 언젠간
성공한다고 보고 투자가 이어지
는 때가 있었다. 지금은 투자시
장이 얼어붙은 상태이기 때문에
적자가 이어지면서도 제대로 된
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업
은 아기 유니콘이 아닌 ‘밑빠진
독’으로 통한다”라고 밝혔다.

지난달 발란은 250억원 규모
의 시리즈C 투자 유치에 성공했

다. 본격적인 고물가 사태가 시
작 되기 전 발란은 명품 커머스
업계 1위 기업으로 꼽히며 기업
공개(IPO) 시점을 두고 세간의
관심이 몰렸다.

그러나 이번 시리즈C 투자 내
역을 보면 주춤하는 성장세가
보인다. 지난해 10월 있었던 시
리즈B 당시 발란은 2500억원의
가치를 인정 받고 325억원의 투
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.
그러나 이번 투자에서 발란이
인정받은 기업가치는 3000억원
수준이며 투자금 또한 지난해
보다 줄었다.

지난 9월에는 수산물 당일 배
송 서비스 ‘오늘회’ 운영사인 오
늘식탁이 전 직원에 권고사직을
통보하면서 충격을 줬다.

〈2면에 계속〉

/김서현 기자 seoh@metroseoul.co.kr

社告

‘2022 뉴테크노로지포럼’

가상인간과 메타버스 초거대 AI의 미래 전략

최근 인공지능(AI) 분야 최대 이슈는 초거대 AI 개발과 가상
인간입니다. 빅테크 기업들도 초거대 AI 모델과 AI 언어모델
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. 검색, 비서, 쇼핑 등에도 초거대 AI
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

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몰입감 높은 가상융합 공간과 디지털
휴먼 등을 구현하는 기술인 XR(가상융합) 형태의 메타버스 경
제 생태계 및 관련 산업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. 메타버스는 확
장현실(XR), 인공지능, 빅데이터, 5G 네트워크, 블록체인 등 범
용 기술의 복합체입니다. 이처럼 AI와 메타버스 기술은 이미 우
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. AI, 메타버스는
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.

‘초거대 AI, 가상인간과 메타버스’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
포럼에서 AI의 개발 흐름과 기능, 가상인간의 최신 트렌드, 메
타버스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메타버스 및 AI 산업 전문가들
과 함께 미래 전략을 세우고 공유하고자 합니다.

- 주 제 : 초거대 AI, 가상인간과 메타버스
- 일 시 : 2022년 11월 23일(수) 14:00~17:00
- 장 소 :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
- 강 연 : 김정대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, 김명준 SKT A.(에이
닷)대화 담당, 이진복 마이크로소프트 시협력팀 상무,
윤영진 네이버 AI사업개발 리더, 유지형 제네시스랩 기업
부설연구소 AI연구팀장, 최하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
- 주 최 : 메트로경제, 메트로신문
- 후 원 :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,
한국메타버스 학회
- 사전등록 : 메트로신문 홈페이지(www.metroseoul.co.kr)
(사전등록 참가비 무료, 현장등록 5만원)
- 문 의 : 2022 뉴테크노로지포럼 사무국
02)721-9826, forum@metroseoul.co.kr

*상기 일정 및 후원,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metro



윤석열 대통령이 13일(현지시간)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에 참석해 있다.

/뉴시스

“5년내 투자 1.7배 ↑... 전략적 경제 동반자 구축”

**尹, 한-아세안 정상회의 성과
포용·신화·호혜 연대구상 강조
필리핀 등 협력 대상국도 확대**

아세안(ASEAN·동남아국가
연합) 관련 정상회의의 참석차 캄
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
령이 자유·평화·번영의 3대 비전
을 바탕으로 포용·신화·호혜의 3
대 협력 원칙을 담은 ‘한-아세안
연대구상’을 강조하며 한-아세
안의 연대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
했다.

〈관련기사 5면〉

이에 윤석열 정부는 윤 대통
령의 한-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
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교역 규
모를 2021년 기준 1785억달러
에서 5년 내 2600억달러로 약
1.5배 성장하고, 대(對) 아세안
투자 규모도 960억달러에서
1600억달러로 약 1.7배 늘릴 계
획이다.

이를 위해 ▲아세안 국가들과
의 협력 다변화 ▲핵심광물 확보
및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
▲디지털 전환·아세안의 산업구

조 고도화 등 경제구조 전환 협
력 방안을 추진한다.

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아세안
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
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며,
아세안 시장이 2030년에는 일본
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권으로
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
나라와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
조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
되기 때문이다.

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-
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

과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
고자 했고, 정상회의에 참석한
아세아 정상들을 통해 디지털·
스타트업·기후변화 대응 등 다
양한 부문에서 한국과의 협력을
강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
수 있었다고 설명했다.

또, 이전 정부까지 대 아세안
전략은 교역과 투자가 베트남,
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
아세안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못
한 한계가 있었고, 신종코로나
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팬

데믹 이후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
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떠올랐으
나 아세안 지역에 대한 구조적·
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진단
했다.

윤 대통령의 한-아세안 연대
구상에 따른 경제 분야 협력은
아세안의 경제구조를 지원하는
동반자로서 경제 파트너십을 구
축해 나가는 데 중점을 뒀다.

구체적으로는 아세안 연대를
지속가능하고, 상호 호혜적이기
위해 우선 경제협력 대상국을 베
트남, 싱가포르뿐 아니라 인도
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태
국, 캄보디아 등 모든 아세안 국
가로 확대해 나간다.

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별 특

성 및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차
별화 전략을 펼 계획이다. 예를
들면 베트남과는 산업·에너지 전
반의 국제분업관계 고도화를, 인
도네시아와는 광물자원 확보와
디지털 전환, 싱가포르와 디지털
규범 협력, 태국과 한-태 CEPA
(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) 협상
재개, 말레이시아와는 그린수소
등 미래 에너지 분야 협력, 필리
핀과는 원전·방산·인프라 협력
등을 강화해 나간다.

또,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필
수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고,
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
방침이다.

〈5면에 계속〉

/박정익 기자 pathfinder@

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



▲尹정부 첫 ‘예산 국회’ 곳곳 파열음...
정 기한 준수 ‘먹구름’ /사진 뉴시스
▲민주 “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... 김용·
정진상 소유 아냐”

▲尹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예산 5억원
... “절감 논의”
▲국민의힘 “세월호 희생자 지원금, 시
민단체 유용 확인 시 전액 환수해야”



▲정의당 “청년, 고스펙에도 희망 없어
... 노란봉투법으로 변화” /사진 뉴시스
▲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참석한尹... “평화
로운 인태 위해 北 비핵화 불가피”